



## 미 증시, ISM 지표 부진, 기술주 강세 등으로 혼조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6 일(화) 미국 3 대 증시는 사상최고치 경신 부담 속 6 월 ISM 서비스업 PMI 부진 등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장중 하방 압력을 확대시킴. 6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도 지수 움직임을 제한했으나, 금리 하락,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 취소 등에 힘입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 중반 이후 반등에 나서면서 혼조세 마감(다우 -0.6%, S&P500 -0.2%, 나스닥 +0.2%). 업종별로는 부동산(+0.9%), 경기소비재(+0.8%), 유트리티(+0.4%) 등이 강세, 에너지(-3.20%), 금융(-1.6%), 소재(-1.4%) 등이 강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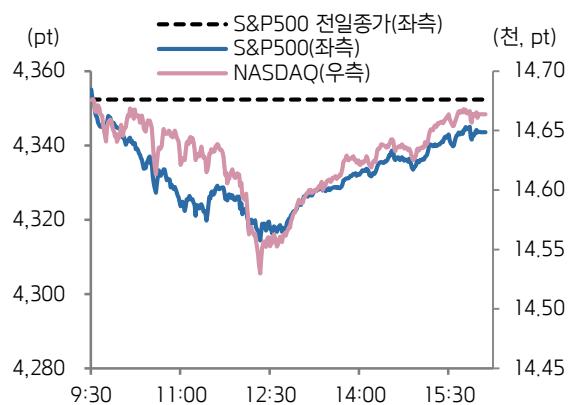
6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60.1 로 전월(64.0) 및 예상치(63.3)를 모두 하회. 신규주문(63.9→62.1), 기업활동(66.2→60.4), 가격(80.6→79.5) 등 대부분 하위 항목들이 모두 둔화된 모습.

미 국방부는 산업 발전, 약 100 억달러 규모의 합동방어인프라사업(JEDI)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취소. 2019 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(+0.0%)가 수주했던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,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아마존(+4.7%) 주가가 급등. 이 영향으로 클라우드 등 여타 기술주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.

### 미국 증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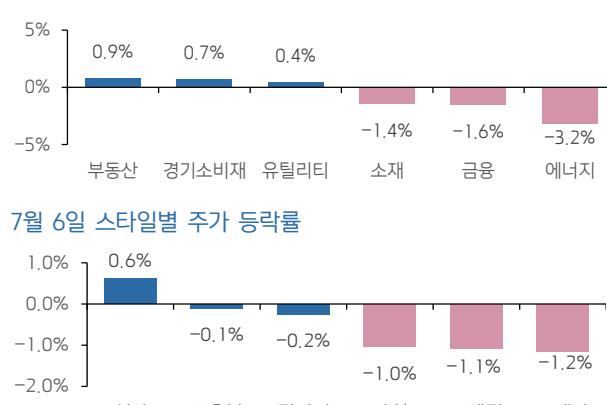
6 월 FOMC 이후 한동안 시장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낮아졌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 강세의 배경이었음. 그러나 서비스업 PMI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공급 부족, 비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부담이 미국 서비스업체들의 심리를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. 10 년물 금리가 약 20 일만에 1.3%대로 하락한 것도 (델타 변이 확산 영향도 있으나), 서비스 PMI 부진에 따른 미국 경기 고점 및 성장을 둔화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 물론 2 차 보복소비 여력, 인프라 투자 기대감 등을 감안 시 경기 모멘텀이 이른 시일 내에 피크아웃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, 단기적으로는 경계할 필요. 연준도 8 월말 잭슨홀 미팅 전까지 6~7 월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것임을 감안 시, 추후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재차 출현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S&P500 일중 차트(7월 6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7월 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7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75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40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137.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- 미국 경기 모멘텀둔화 우려에서 기인한 국내 경기 민감주 주가 변동성 경계
- 미국 클라우드 업종 강세라는 훈풍이 국내 관련 업종으로 확산될지 여부
-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

## 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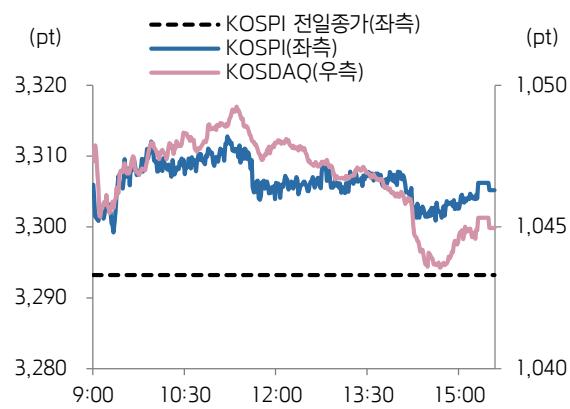
6 일(화) 코스피는 개별 악재성 재료에서 기인한 바이오주 주가 조정, 중소형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,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따른 삼성전자(+1.0%) 등 반도체 포함 IT 업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(코스피 +0.4%, 코스닥 -0.2%)

업종별로는 기계(+1.9%), 전기전자(+1.2%), 비금속광물(+0.9%) 등이 강세, 의약품(-3.0%), 운수창고(-0.4%), 철강금속(-0.4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92 억원, 2,237 억원 순매수, 개인이 2,920 억원 순매도를 기록

## 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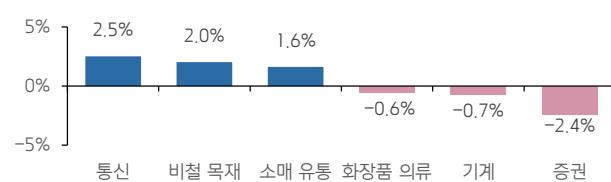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단기적인 레벨 부담 속 미국발 경기모멘텀 둔화, 6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등 대외 부담요인으로 금일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역외 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이 약 7 원 가까이 급등했음을 감안 시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. 물론 장 개시전 발표예정인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(영업이익 컨센서스 10.9~11.0 조원)에 따라 장중 지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. 2 분기에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현재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은 사실. 그러나 4~6 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감안 시, 통상적인 서프라이즈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. 이 경우 전반적인 2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확대됨에 따라, 대외 악재성 재료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(7월 6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7월 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### 7월 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키움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